

ARCASIA 이사회 및 토론회 참가기

Looking Back Upon 12th ARCASIA
Council Meeting and Forum

FEATURE

김지덕 / 유신건축, 국제위원회 위원장
이정근 / 우리계획,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1. 들어가는 말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제 12차 이사회는 9월 24~25 양일간 그리고 26일은 건축 및 관광으로 이어지고 27~28 양일간에는 제6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회의 장소는 북경 서북쪽 교외지역 향산공원에 위치한 아이엠페이지 설계였다는 향산호텔이었다. 비행기편 관계로 추석인 22일 아침 비행기로 홍콩경유 북경에 도착하였다. 오운동회장과의 이의구이사는 주로 대외 협의를 주재하면서 행사 전반의 협회측 결정사항에 대해 주관하기로 하였으며, 국제위원회 김지덕위원장과 이정근부위원장 및 김종복위원은 이사회의 진행에 참석하고 교육위원회에는 진봉수위원 및 조인숙위원이 참석하였다. 포럼행사에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참석토록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사회의 진행 및 결정사항을 회의순서대로 요약하여 포럼의 발표내용과 이번 행사의 성과와 전망을 기술하기로 한다.

2. 제12차 이사회의(1991. 9. 24~25)

1. 개막식

1. 회의소집

아카시아 자문단의 한사람인 로날드 폰의 사회로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회장 빌그라미씨의 개막인사와 중국측 건설부장관의 치사 및 세계 건축가협회 전회장 로드 해크니씨의 축사가 있었다. 중국 건축사 협회장 다이 니안치씨가 병중에 있어서 대신 부회장과 우양용 교수가 개최국의 입장에서 인사말을 건넸다. 금번 제6회 아카시아 포럼의 의장인 로날드 폰의 개막선언이 있었다.

2. 본회의

1. 회의의제

회의의제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총무간사 자이감 제프리는 의제번호 12.0회원가입 항목에 명기된 북한대표가 참석치 않았고 북한에서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북한의 가입 문제를 토의안건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되고 모든 부문에서의 상호교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건축분야에서 대북한 교류를 주도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에 북한을 가입시킴으로써 양측간에 공식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회의 약 한달전에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장 빌그라미씨, 주최국인 중국 건축사협회장 다니안찌씨 및 아카시아 자문위원이자 이번 제6회 아카시아 포럼 의장인 로날드 폰씨에게 북한에 공문을 보내 이번 아카시아 이사회에 북한이 참관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응답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2. 11차 이사회기록

빌그라미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총무 자이감 제프리의 사회로 회의 의제에 대한 소개와 작년 인도 아그라에서 열렸던 제11차 이사회기록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진행되었고 수정 확인된 회의록이 통과되었다.

틀린 글자의 수정, 잘못된 문장의 교체등이 있었고 전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결의안이 회의록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수록하도록 하였다.

작년 제11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바 있는

신입회원 가입의 공식적인 절차와 신입 심사위원회등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음이 지적되었고 1989년 제10차 이사회에서 회람되고 작년 11차 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시행규칙'에 포함된 회원가입에 관한 조항으로 가능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제기한 아카시아 행사에 있어 손님(guest)에 대한 규정은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모든 인사를 손님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3. 재무간사의 보고

아카시아 시행규칙상에는 전회기 회장단에서 2년 임기의 마지막해 12월 까지의 결산처리를 하여 익년 3월까지 차기 회장단에서 인계토록 되어있으나 전회장국인 인도에서는 자국사정에 의해 익년 3월까지 결산처리를 하고 6월까지 새 회장국인 파키스탄에 인계하였는데 이러한 관행을 앞으로도 적용시키자는 인도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의 특수사정으로 시행규칙을 고칠 수 없다하여 시행 규칙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및 인도가 회장국이었을 때 각각 장부상에 잔액계정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현 회장국으로 이월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고 스리랑카에서는 회비를 여러번 미납하여 이들 문제에 대해 각 해당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였다.

회장국 파키스탄 협회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에는 1991년 1월부터 9월22일 까지의 결산에서 수입 \$3400, 지출 \$1870 잔액 \$1,230로 보고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KASI가 매 이사회마다 예산 집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통과되었다.

4. 각 회원국의 연례보고

각 회원국 협회는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지난 11차 이사회이후 1년간 각국 협회에서 실행한 주요한 업무와 각국에서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 관심사들을 차례대로 간단히 요약 설명하였다. 싱가포르의 대표 테이 켄슨은 싱가포르 건축사 협회의 기본 실행 목표를 중심하여 보고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에 여기에 요약해 본다.

첫째는 건축사의 영역을 온통 시장경제의 원리에 내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건축전문직의 지속적인 개혁만이 더욱 각박해지는 경쟁사회에서 건축인이 살아남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교육기관에서 자질이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세번째는 사회주택의 정책이 있어 관료화

및 경직화 되기 쉬운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많은 역할을 민간부분이 떠맡아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네번째는 신진 건축사에게 더 많은 역할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건축사 역할분담의 주기가 쇠신되어야 하고 공개 설계경기 기회가 확장되어야 하며,

다섯번째,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간에 사람과 정보 및 재능들의 교환과 흐름이 보다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보와 역할의 적절한 상호공유 및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필리핀과 태국이 자국내 건축용역에 대한 선진 외국의 침투에 대해 강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이며 홍콩과 싱가포르를 가능한 개방정책을 환영하는 편이어서 각국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견해가 엇갈림을 알 수 있었다. 의견의 대세는 개방을 통해서 보다 건축전문직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적절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선진화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에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마카오, 몽골리아 및 일본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관단을 보냈는데 옵저버 참가국 대표들의 자국 건축사협회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마카오의 경우 전체 인구 60만명에 70명의 건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건축사 대부분이 포르투갈에서 교육받았다고 한다. 몽골리아는 200만의 인구에 280명의 건축사가 있으며 이중 150명 정도가 1955년에 창립된 몽고 건축사협회 회원이다. 젊은 세대 건축사를 빼고는 기성건축사들 대부분이 소련과 동구에서 교육받았다고 한다. 일본에는 건축판계로 4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옵저버로 참여한 단체는 신일본 건축가협회(JIA)였다. 이 협회의 상황은 1914년에 창립되어 1987년에 재조직 되었으며 회원수는 8000명으로 유럽 및 미주의 협회들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1. 대한건축사협회 보고내용

한국의 대한건축사협회의 보고내용은 지난 일년간의 여러 행사 및 업무중에서 비중을 가지는 7개 항목을 요약하였다.

대의원총회, 한국건축전, 전국건축사대회, 컴퓨터의 이용 및 전국대회에 대한 여론과 건축행정의 효율화 등에 대해 행한 여론 통계조사, 건축법개정노력, 회원현황 및 각 위원회 활동현황, 남, 북 건축사 교류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 경향, UR 등 용역산업의 국제환경 변화 및 남북한 간의 UN가입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의 남북한간의 교환교섭이 증가하는 사회환경에서 건축전문직이 처한 새로운 작업환경에 대응하여야 하는 숙제를 앞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대한민국과 북한의 건축사들이 아시아건축사협의회라는 국제적인 모임의 마당을 통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모두 도와주기를 청하였다.

5. 활동그룹의 보고

1. 실무제도 활동그룹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기로 하였었지만 별 진척사항이 없었고 앞으로의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전망이 흐리므로 그룹활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각국별로 활동사항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2. 대 건축외 분야 홍보그룹

인도 건축사협회(IIA)주관하에 활동 지침서가 마련되었으며 이 지침서를 참고로 각국 협회에서 활동내용을 연례보고서에 수록하도록 결정하였다. 전 아카시아 회장인 루시 캄바티는 해마다 각국에서 최소 일년에 한번 아카시아의 이름으로 하나의 행사를 마련하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아카시아의 세 부회장중의 한 사람인 차곡명(싱가폴)은 이사회에 결정사항을 폐회직전에 요약해서 회람토록 긴급제의 하였다.

3. 건축사 선발제도 연구그룹

태국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였지만 별 다른 진전이 없어서 발표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

4. Arcasia City Project

이 프로젝트는 1987년 제8차 이사회에서 말레이시아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별 진전이 없으므로 말레이시아에서 포기하고 1990년 제11차 이사회에서 한국과 파키스탄에서 담당하도록 위임되었었다. 파키스탄에서는 별로 준비한게 없었고 대한 건축사협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책자의 제목을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n Cities : ARCASIA Guide"로 하고 각국마다 주요도시에 1980년 이후에 지어진 주요 건축작품 20점씩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책으로 편집하여서 팽창하는 건축활동의 보고로 세계에서 각광을 받기시작한 아시아국가중 특히 ARCASIA 회원국을 중심으로 최근 십년간의 건축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책자를 발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책자의 내용을 어떻게 가치있는 것으로 잡아가느냐 하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실행을 뒷받침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게 관건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어 진지한 토의가 계속되었다. 이 책자의 성격이 ARCASIA 회원국 주요도시의 건축가이드 정도의 자료모음집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십년간의 아시아 건축의 발전상과 21세기를 향한 건축의 흐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재원의 출처가 처음부터 확보되지 않는 한 실현성이 희박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능력있는 편집자와 지명도 있는 출판사를 선택하면 상업성이 있으므로 재원없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각국의 수상작품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었고 홍콩에서는 각국마다 예정 매입권수를 확정하여 출판비를 각출하자고 주장했다. 현 회장 빌그라미씨는 자료수집기간을 계획서에 명시한 1991년 12월보다 더 길게 잡아야 할 것이며, 각국마다 각각 스폰서를 하나씩 제공하는 견해였다. 결국은 대한 건축사협회의 주관하에 싱가포르의 테이켄순씨 및 아카시아 고문인 로날드푼 씨와 협의하여 편집자를 구해보고 출판사도 구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결정을 보았다.

5. Arcasia Information Center

스리랑카에서 운영하기로 한 아카시아 정보센터가 지지부진하자 기왕에 말레이시아에서 담당하고 있는 ARCASIA ARCHIVE와 이 정보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토록 제안되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카이브도 제대로 활성화하기 힘들므로 떠맡기를 반대하였다.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는 많은 ARCASIA 사업계획이 실현성을 결하고 있기때문에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두 사업을 합쳐 하나라도 충실히 실천해나가자고 의견 제시하여 합의 통과 되었다. 싱가폴은 훌륭한 도서 및 정보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6. 아카시아 정관 개정

정관내용중 2.0 SECRETARIAT 조항에 영구 사무국을 두는 문구에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수정하였다. 또한 4.0 Membership, 6.0. The Council, 조항에 대해 회장단에서 지난 9월 7일 각회원국 협회에 서신으로 제시한 바 있는 개정안에 대해 토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7. 아카시아 시행규칙(ByeLaws)의 채택. 작년 제11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아카시아 시행규칙 문안에 대한 재확인 심사 및 토의가 있었고 대한 건축사협회 발의와 인도네시아 협회의 제청 형식으로 통과되었다.

8. 아카시아 포럼

아카시아 포럼을 창시하여 1회에서부터 금번 6회에 이르기까지 행사를 조직해온 홍콩의 로날드 폰으로부터 포럼 조직의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회장 빌그라미씨의 제청으로 그의 공로에 대한 치하가 있었다. 작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는 포럼 조직 책임자를 투표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1993년에 열리게 될 제7회 포럼의 조직담당에는 말레시아의 Jimmy Lim이 선출되었다.

9. 아카시아 건축상

작년 인도의 제11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아카시아 건축상이 처음으로 내년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제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서 첫 시행을 보게 되었는데 이 건축상 요강 및 제 규칙을 성안한 바 있는 파키스탄의 자이감 제프리가 아카시아 건축상 위원회 제1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를 주관하게 되었으며, 대한 건축사협회에서는 한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각국의 협회는 자국의 우수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료를 1992년 1월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었다.

10.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ACAE)보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P. Kasi가 이번 교육위원회 회의의 진행결과를 요약 보고하였으며, 내년 10월 파키스탄에서 열릴 제 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병행하여 열리는 학생 켐버리의 주제는 "21세기의 풍토건축(The Vernacular Architecture of the 21st Century)"로 결정되었음을 알렸다.

11. 아카시아 신입회원 가입

마카오와 일본은 각각 회원국 12개국중 11표로 몽골리아는 전원 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작년 제11차 이사회에서 대한 건축사협회가 제안한 바 있는 가입 절차상 가입투표전에 각 가입신청국 협회현황 자료를 인쇄물로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시하도록 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채 진행되므로 말레시아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회장단 쪽에서 작년 일년간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신청국과의 사이에 절충하여 왔다는 보고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였다.

신입 세 회원국으로부터 인사말이 전해졌고 모두 박수로 환영하였다.

12. 제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제5회 아시아 건축대회 주최국인 파키스탄은 대회의 기본 실시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상세한 일정표는 내년 1월중으로 각국 협회로 발송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1992년 10월24일, 25일 양일간 제13차 이사회가 열리고 27, 28 양일간 "건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제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

13. 제 14차 이사회 및 제7회 아카시아 포럼

1993년에 열리게 될 제14차 아카시아 이사회 및 제7회 아카시아 포럼의 개최신청을 받았는데 홍콩에서는 이 대회의 유치에 위해 슬라이드 및 비디오테잎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발표하고 안내와 선전책자를 배포하였다. 그외에 다른 신청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홍콩이 다음의 포럼과 제14차 이사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14. ARCASIA와 UIA 및 다른 국제 및 지역 기구와의 관계

인도 건축사협회에서는 ARCASIA 및 UIA의 후원하에 건축유산에 대한 학술대회를 인도 건축사협회 창립 75주년 기념으로 1992년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하였다. 전번 회장단에서는 UIA 제4지역과 ARCAISA의 통합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심각히 취급한 반면 이번 회장단의 태도는 두기구를 섞는다는 것은 ARCASIA가 대표하는 지역의 지역특성을 잃게하는 것이며 의미가 없다는 견해였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이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5. 기타안건

태국협회에서는 자국정부가 GATT협정을 통해서 용역업의 국제간 자유통상을 피하는데 대해 전문직과 용역업은 엄연히 구분되어야하므로 건축설계는 이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해석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아시아 건축사협회의 회원국가 정부들에 이를 알리자는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 안건에 대한 이사회에 대체적인 의견은 1984년 마닐라 ACA-1에서 채택된 "International Code of Ethios on Consulting Service"가 1987년 UIA에서 다시 공식건해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족하며 중복해서 다시 논의나 결의가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레시아의 Jimmy Lim은 말레시아 협회는 ARCASIA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ARCASIA에 관한 사항들을 실어 전하는 정기발행 잡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다.

3. 소결

이번 제12차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이사회의는 아카시아의 새로운 변모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의 허술했던 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규정 및 실행방법을 보완정비해가는 방향전환의 계기였다.

1988년 제3회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서울 개최를 정점으로 초기의 아시아 건축사협회의 조직 활동가들의 역할이 절정기에 이르렀던 감을 가지게 된다. 초기 활동가들의 퇴조와 더불어 1989년 중국의 가입 및 올해의 몽고, 마카오, 일본 등 새 회원국들의 등장으로 회원국수가 15개국으로 늘어나 조직이 팽창되었다. 자연적으로 조직, 운영, 제도 및 관계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과도기적 양상을 띄우고 있다. 작년에 있었던 아카시아 시행규칙의 통과 및 이에 대한 이번 이사회에서의 재확인인 시기 적절한 대응이었다. 아카시아 포럼의 제창자였고 이제까지 6회에 걸쳐 포럼행사를 조직해왔던 로날드 폰이 물러나고 선거에 의한 담당자 선출이 시작되었으니 포럼행사에도 새로운 발전이 기대되며 발전적인 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사회의 구성은 각 회원국 협회장을 중심으로 하며 각국의 협회장은 정기적으로 바뀌므로 아카시아 운영의 연속성과 발전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운영 및 조직제도의 효율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특히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장을 맡은 당사국 회장단의 일처리 능력과 활동에 따라서 아카시아 활동의 기초가 좌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회장국 실무진의 능력과 헌신적 노력이 중요하다.

어차피 회장국도 정기적으로 바뀌어야하므로 개별적인 능력과 활동범위의 차이와 경향의 장, 단점에 따라 아카시아라는 전체 조직의 운명이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조직, 운영, 제도의 객관적 틀의 정비가 필수적인 것이다.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어도 조직을 운영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각 참가회원국 담당자들의 책임의식과 아이디어 및 실천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며 각 개별회원국 협회 회원들에게까지 아카시아 행사의 뜻과 의의가 피부로 전달 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회장인 인도의 루시 캄바타가 제안한 바와 같이 해마다 최소한 1회이상 각국 협회가 아카시아 이름아래 행사를 개최하자는 의견은 공감이가 바가 크다.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해마다 한국 건축전 학생부분 최우수상 입상자를 아카시아 학생 잼버리 및 건축여행에 참가시키는 관례는 매우 뜻이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새로 제정되어 내년의 제5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부터 시행될 예정인 아카시아 건축상도 각국 회원들에게 직접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뜻이 있다고 보겠다.

지금까지의 아카시아 운영 경향을 보면 회원구들 나름대로 의욕만 가지고 제도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현실적인 아카시아 조직의 현황이나 예산의 뒷받침, 실행가능성 등을 심박히 고려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채택하곤 하였다. 결과는 아이디어만 내고 결의하여 책임이 할당되지만 몇 해를 두고도 성과가 거의없고 또 앞으로도 없어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발전도상에 있는 국제 조직체의 미숙련과 성장과정의 착오라고 보아야겠지만 이제는 각국협회가 이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는 모든 제도와 활동 프로그램도 실천과 성과가 예측되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착실히 성안하여 진행해가야 될 것이다.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 제도와 프로그램은 통합해 조정하여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향때문에 대한 건축사협회에 맡겨진 바있는 ARCASIA City Project에 대해 본협회에서는 계획초안을 잡아 이번 이사회에 토의를 부쳤던 것이다. 예산의 뒷받침에 대해서는 아무도 결정적인 답변을 못하므로 이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본 협회는 좀더 진행하여 보기로 하였다.

4. 제6회 아카시아 포럼(1991. 9. 27-28)

이번 포럼은 27, 28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째 날에는 이사회가 열렸던 회의실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발표자 5명의 발표가 있었으며, 두번째날에는 장소를 옮겨 호텔의 정원에 자리를 마련하여 하루종일 첫째날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첫째날의 좌장은 로날드 푼이 맡았고 두번째 날에는 켄양이 수고해 주었다.

포럼주제는 “아시아에 있어 대단위 사회주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며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각각 연사가 초청되었다. 본 글에서는 발표

및 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1. Lin Zhiquan, 중국의 사회주택-전통과 쇄신

Lin 교수는 청화대학교 교수이며 중국 건설부 정책 연구위원회 부소장이며, 이외에도 중국의 도시, 주택, 농촌, 건설분야 등의 정책 연구기관에 깊이 관여해 온 사람이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인 주거형식을 중정식과 기타 일반 자유양식으로 분류하며, 이 중정식은 상류층이나 일반을 막론하고 널리 보편화된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이 양식은 중국의 가족구조와 사회규범을 철저히 양식화된 것으로 본 반면 농촌지역과 소수민족들에 의해 많이 나타나는 기타 자유형식은 보다 기후, 토양, 경제적 능력 등의 실제적인 조건에 많이 좌우되었다고 보았다.

Lin교수는 중국의 사회주택의 발전과정을 1949년 공산정권 수립이후 1978년까지 30년동안과 1979년부터 1989년까지의 10년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1990년 이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1949년이전의 중국사회를 봉건사회로 규정하고 공산혁명이후 봉건제도와 초기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가 타파되고 사유재산제도가 철폐 되었고 자내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빈부차이의 극소화, 사회복지제도, 및 경제와 정치에 있어 평등성이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회주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토지의 사유가 철폐되고 주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공소유로 되었다. 여러 정치적인 원칙과 운동에 치중되어 사회주택이 소홀하게 취급되었었고 중국 전통주거 관례에는 대량 사회주택에 대한 지식과 이론이 없었으며 서구의 경험은 무비판적으로 배척되는 실정에서 소련과 동구로 부터 모형을 선택했다. 절제를 최상으로 하였으므로 저질을 양산하는 격이 되었으며, 이성적인 설계를 강조한 반면에 입지와 배치에서는 비이성적이며 생활관습과 동떨어진 이중적 유형을 형성하여 나중에 다시 고쳐야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건설공법의 낙후와 값싼 임대료, 사유가옥의 몰수 등으로 유지관리가 잘 안되었고 우량의 기존 전통주거들마저 모두 괴실되었으며 옛것은 최악시되고 저질의 새것으로 대량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9년 이후 십년간에는 사회주택이 국가정책의 주요소가 되어서 투자가 집중되었고 상품으로서의 사회주택 개념이 실험적으로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에 결부된 복잡한 어려움들을 깨닫게 되었다.

집단 생산단위에서 직원들을 위한 집을 짓게하고 토지 및 주거의 생산단위 별

소유제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낳았다. 이것은 동시에 단점과 장점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동안 단순하고 편일물적이었던 설계를 다양하게 하는 노력이 가미되고 전국적인 주택통계조사가 실시되었다. 80년대 들어서 사회주택분야에 있어서의 주요변화는 다음과 같다.

- 1) 전통의 승계 발전과 가치평가 및 실험적 프로젝트 시행
- 2) 사회주택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예측 활동의 강화
- 3) Garden Housing이나 Support-Infill과 같은 대담한 쇄신책의 도입
- 4) 사회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예측활동강화
- 5) 사회환경으로서의 총합적인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행

Lin교수가 앞으로 중국의 사회주택문제에 있어서의 과제로 보는 점은 전통적 환경과 현대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문화적 축적을 새 주거유형에 반영하는 것이며, 농촌주거의 개선책 수립, 도시 주거지역 재개발의 효율적 수행이다. 이를 위해 주요 방향설정의 지침은 첫째, 중점이 양에서 질로 옮겨져야 하며, 둘째, 여러 종류의 조사통계 분석을 통한 정확한 정보체계의 확보, 셋째, 건축가들이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사회경제의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조직자로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2. Akira Ozawa, 도시형 집합주거의 새 모델

오자와씨는 동경공업대학 교수이며, 자신의 건축 아틀리에를 자영하고 있다.

그의 발표내용은 서울의 일부지역의 문제와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동경에서는 유통 화폐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데다가 사업자들의 도시내업무시설 수요가 급증하여 땅값이 너무 빨리 상승하여 땅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도시내 모든 지역이 업무 상업용도로 바뀔 지경에 이르렀다.

대지가격의 상승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주거문제를 복합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는 우선 대지가격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자신이 개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자가소유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지 소유자가 자가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유형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자와씨는 대지가 작게 쪼개져서 연결하는 도시내 지역에서의 이상적인 주거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19세기중반

전까지 서구도시에서 전형을 이루었던 도로에 연접하여 안쪽으로 내정을 가지는 가로변 블록형 주거를 상기시켰다. 이 유형의 주거는 19세기중반 이후 자유방임주의적인 사회주택 정책에 따라 가로변 블록형 주거의 나머지 공간에 다층의 건물들이 뺄뺄히 들어서는 바람에 이 유형자체에 부정적인 비판이 가해졌고 급기야 1930년대에는 동일한 길이의 개방된 열이 반복배치되는 형식을 낳았다. 후에 엘리베이터의 공급으로 밀도를 높이고 건물간의 빈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취지아래 대지가운데 우뚝 솟는 다층건물이 선호되었다. 이 건물 유형은 도시의 표피조직과 매우 이질적인 도시구역을 만들어갔다. 기존의 도시조직과 일체를 이루며 도시인의 사회관계망에 밀접히 대응하여 온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주거건축 형식으로 일찍이 로마의 아트리움이 있는 도무스와 중국의 사합원 주거형식을 들 수 있다. 대지 가운데 건물이 들어서 거리와 건물사이에 빈 공간을 남기는 “파빌리온”형식에 해당하는 free standing slabs, towers, open parallel row 등에 비해 전통적인 중정형식은 가로변블록형과 더불어 대지내 빈공간과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 및 인접가로를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공간덩어리로 만든다. 19세기 유럽에서 성행했던 런던의 조지안 테라스 하우스와 파리의 Maison a Loyer 등의 새로운 중정형식은 중정형식의 새로운 발달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자와씨는 동경의 소규모 필지가 밀집한 지역에 다수의 지주들이 대지를 합필하여 공동의 중정을 둘러싸고 거리와 중정을 연결하는 다층의 가로 연접 블록형 중정식 집합주택 설계를 소개하였다.

이 주거형식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Enfronting Rule-1, 인접도로 전길이에 걸쳐 건물이 접한다.
- 2) Enfronting Rule-2, 인접대지 경계선에 건물이 접하게 하며 이면에 개구부를 두지 않는다.
- 3) Front, Rear Aspect Rule, 건물은 거리와 중정 두면을 앞뒤로 접한다.
- 4) Rule of Self-Sufficiency, 건폐율 60%를 뺀 빈공간을 모두 중정이 차지하여 일조와 통풍 그늘 등을 제공한다.
- 5) Passage Court Rule, 인접가로와 중정을 연결하는 통로가 놓인다.

3. Raj Rewal, 현대생활의 수용을 위한 전통주거형식의 재 해석

Raj Rewal은 인도 델리대학에서 1963년에서 1972년 사이에 건축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인도의 전통적인 도시와 건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집합주거 및 건축분야에서 개성있고 독자적인 작업을 해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Sheik Sarai의 집합주거, 아시아 올림픽촌 및 국립 면역학 연구소 건물 등의 예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도입한 설계 지침을 보여주었다. 그는 먼저 인도에 번지고 있는 서구의 영향하에 건축된 많은 고립적이고 반복적인 건물 덩어리들이 결하고 있는 공동체적 속성과 개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에게 설계원리를 제공해 주는 원천은 인도의 Jaisalmer와 Udaipur 등의 역사적 도시에서 발견되는 좁고 그늘진 생기 왕성한 길들이다. 여기에서는 공간들에 간간이 놓이는 출입문으로 결절점이 생기며 휴식, 오락공간이 상업지역과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라자스탄 지방의 도시들과 하벨리스라는 대 저택의 건축양식에서 내정을 이용하여 뜨거운 열을 식히는 방법들이 다시 원용된다. 그는 서로 연결된 작고 큰 광장들과 중정 및 옥상공간을 도입하여 집과 길이 뒤엉키고 광장들과 어울리는 여러 덩어리의 집합체를 만들어낸다. 야외공간들은 좁은 보도로 연결되며 그늘을 만들고 오락기능과 상업기능이 배합되어 생기찬 길거리를 만든다. 길들은 지루하지않게 분절되어 편의 장소와 변화있는 비스타를 제공한다. 그는 동양의 아치와 돔 또는 부조 등의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를 모방하려하지 않고 과거로부터의 영감을 이성적인 구조와 현대기술 및 새로운 재료를 구사하여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합하게 재해석한다. 그리하여 그는 연속성과 자기동일성 및 다양성간에 잘 조절된 균형을 찾아내려고 한다.

4. Lee Kwong Yan, 고밀도 대단위 사회주택

Lee Kwong Yan은 말레이시아의 젊은 건축가로서 말레이시아의 여러 사회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사회주택을 크던 작던 하나의 생활공동체에 삶의 터를 제공하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원주민, 중국계, 인도계 등의 인종이 공존하는 다인종 국가여서 각각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과 전통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후의 특성상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인들은 광선이 거실부분으로 깊이 침투하지 않는 남-북향을 선호하며 고온다습하므로 자연통풍이 원활한 평면을 원한다. 설계밀도자체가 모든 요소에 앞서 어느정도 건물의 유형과 형상을 결정하게

됨을 전제로 통상적인 두면의 벽에 의한 평면형상은 고밀도 주거에서 다양한 주거를 생성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3면의 벽(3-side wall)을 이용한 평면유형의 생성은 보다 유연성있게 일조와 통풍에 유리한 변화있는 형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 3면 벽 구조의 원리를 적용한 프로젝트들을 예시해 보았다.

5. Tay Kheng Soon, 싱가포르의 대단위 사회주택에 대한 고찰

Tay Kheng Soon은 현재 싱가포르 건축사협회 회장이며 건축가로서 사회주택 뿐 아니라 건축환경의 여러분야에 걸쳐 놓은 아이디어를 내는 활동가로 인정받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애초부터 필요에 따라 주거가 주어지기보다는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된 자에게 주거가 주어지는 사회주택 정책을 펴서 그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였다. 토지수용 정책을 강화해서 대지비용을 줄이고 퇴직금 의무적립제에 의한 자금을 주택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했다.

애초부터 사회주택이 평등의 개념에 근거한 정치적 산물이었기 때문에 유형과 가격에 따른 디자인의 표준화가 보편화 되었다. 1986년부터 사유화가 권장되었을 때 싱가포르 정부와 주택공사에서는 이미 주거를 사서 사유화한 사람들의 투자를 평가하락시키지 않기 위하여 전보다 한층 다르고 개선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검증하는 주거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흡수하기 위하여 민간회사로 하여금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Tay는 사회주택 기구가 하나가 아닌 복수로 있어야 사회주택 문제가 비정치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싱가포르의 경제가 국제경제와 국가 공공부분 지향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율성과 주도권의 전망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적 경제부분이 더 성해야하고 분권화된 정치체도가 도입되어야 새로운 사회주택 도시환경 및 생활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싱가폴에서 고밀도는 용적율 1.8에서 2.8사이를 말하며 이는 고층으로만 해결된다고 믿고있지만 Martin Center, Cambridge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밀도의 집을 4층에서 10층으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12~15%의 건폐율을 더 높여서 건물 층수를 더욱 낮출 수 있으며 건물간 거리도 좁혀서 옥외공간을 더욱 긴밀히 활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보았다.

Tay는 현재의 용적률한도 2.8을 더 높혀서 더욱 충만한 도시형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하고 이들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면 문제없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상업시설들이 지층에 놓이고 사회공동시설이 이 상업시설의 지붕층에 오며 그 위에 주거부분이 올라가는 삼단형 원형을 제시한다.

Tay는 John Habraken이 제시한 도시공간조직 (Tissue), 지지구조체(Support Structure) 및 충진(Infil)의 영역의 적절한 절충을 통해 훌륭한 도시의 생활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Habraken이 1988년 서울의 제3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서 “사회적 동의로서의 유형”이란 제하에 발표한 바와 같이 한 문화 속에서 동의의 객관적 기초는 생활공동체의 가치있는 디자인 범주의 적절한 기초가 된다는 명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와 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아집스런 건축의 풍토와 생활환경장조에 있어 경직되고 형식적인 접근에 경도되어 있는 계획가, 기술자, 시공자 등에게도 좋은 경종이 된다고 보았다.

6. 제2일 포럼 토론광장

이번 아카시아 행사가 진행된 향산호텔은 3층정도의 저층 분산형으로 펼쳐진 건물사이마다 옥외공간에 자연지세를 이용한 정원을 가꾸어 놓았다. 포럼의 두번째날 토론광장은 야외로 옮겨 정원에서 진행되었다. 캔양의 사회로 각 발표자의 전날 발표내용에 대한 요약이었고 참가자들에 의한 질문과 답변 및 의견제시로서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중국의 Lin교수는 중국의 사회주택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점은 전통이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검증하는 주거요구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천편일률적인 표준화를 탈피하는 것이라 보았다.

말레이시아의 Lee는 발표내용에 요약된 바와 같이 평면유형의 조합에 의한 다양성 획득과 유연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일본의 오자와교수는 자신이 제시한 주거형식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고 이 제안이 용적률 1.8~1.5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인도의 Rweal은 전통적인 인도의 건축에서 취한 설계원리를 요약하고 자신의 제안이 용적률 2.0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싱가포르의 Tay는 주거의 형상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사회주택의 내부공간에서는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는 용적률의 상한선을

그리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급여하에 따라 용적률한도는 많이 올릴 수 있으며 단지 메가스트락취의 인간화 및 자연의 도입등이 관건이라 보았다. 과감한 방향전환을 위한 실험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주거공간의 양적인 접근에 의한 사고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5. 소결

이사회가 끝나고 26일에는 오전에 북경시내에 위치한 집합주거 단지 두곳을 견학하였다. 물량적인 면이나 재료 등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아파트단지에 견줄만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현대적 삶의 욕구를 동시에 접합시키려는 진지한 실험적 태도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바가 있었다.

우리는 최근의 우리나라 대단위 사회주택 정책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깊은 심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아카시아 포럼에서 있는 5명의 발표자의 발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5명의 발표내용을 일관하는 공통의 관심영역은 사회주택 문제에 있어 양과 질에 관한 것이었다. 양과 질의 범주는 서로 떼어놓고 견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다기하고 섬세한 인간의 주거욕구를 규격화된 틀 속에서 숫자로 채워주려 한다면 아무리 돈을 들여도 좋은 질을 창출할 수 없으며 질에 대한 가치판단은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사회의 여러계층, 지역에 따라 나름대로의 주거형식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다양해야하는 주거의 설계 건설 입주선택의 과정이 단순화되고 경직된 몇개의 경로를 따라 틀지어져 있다. 아무리 비싸고, 크고 많이 빨리 지어가지게 되어도 우리사회 생활공동체 주거의 질은 크게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을 판에 박은 생활공간에 가두는 것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사회주택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 천천히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실험이 가능하도록 여러 범적인 제도의 신축적인 재검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선과 합리적인 추구 다양한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6. 성과와 전망

이번 중국에서 유치한 제12회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이사회와 제6차 아카시아 포럼은 대과없이 무난하게 치루어졌다. 크게 돈 안들이고 검소하게 조용히 매듭지었다. 포럼의 경우는 연사선정에 있어서 테마의 줄거리를 잡을 수 있는 일관되고 수준이 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준비기간이나 비용 등에 있어 한계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사회의 부수행사들은 좀 더 활기차고 흥미가 끌리게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하는 느낌을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이사회와 교육위원회의에서 맡겨진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있게 매듭을 짓는다는 인상을 주게끔 최대한 노력하였다. 단지 아직은 우리의 아이디어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관철시키는데까지는 역할의 비중을 두고 있지 못하다. 점차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여 가고 있다고 본다.

국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임하기전에 계획한 바 앞으로의 아카시아 행사에는 한국에서도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었다.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앞으로 대한 건축사협회는 중국 건축사 협회와 인적 및 기술적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간접적으로 북한과의 건축관계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 참가기간 동안 앞으로의 대 아카시아 업무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의 역할에 대해 허심 탄화한 대화를 가질수 있었던 것은 큰소득이었다. 회원중에서 누가 아카시아 관계 업무에 관여하던 아카시아의 기구, 조직, 일의 진행방법, 인적구성 등에 대한 감을 잡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왕에 일을 맡고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일을 인계 받을 사람들에게 계획성있게 인계 하지 않는다면 국제관계에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대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제 몫을 다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에가서는 이러한 좋은 국제적인 활동이 국내회원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 것이다. 아직도 대한건축사협회가 대 국제관계 역할에서 능숙한 편은 아니더라도 협회의 국제관계 활동이 회원들의 건축활동에 연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찰이 요구된다.